



특별기고 영북노인대학 학장 박 동 규

축복의 卒業式 거행을 위한 노력

박 동 규
전 영북중고 교장·현 영북노인대학 학장

2차 상설위원회, 3차 교직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학교장이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 엄선하여 시상하도록 해야지 만의 일이라도 정실로 시상하게 되면 만인의 빈축(嗾聲)을 사고 학교 공신력(公信力)을 잃고 학교장의 신뢰(信賴)가 무너지게 된다.

애국가·교가·졸업가의 제창(齊唱)은 지휘자의 지휘봉(指揮棒)을 향해서 다 함께 주목해서 박자에 맞추어서 졸업식장에 울려 퍼지게 힘차게 기거(旗)가 아니라 '졸업'이 바른 계사(計詞)다. 애국가·교가·졸업가의 제창(齊唱)이 아니고 제창(齊唱)임을 바로 잡고,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가 아니고 회고사(誦讀辭)임을 알고 그 내용이 교훈(敎訓)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회고(誦讀)는 '기쁘다'로 '교(敎)자'로 통용하는 한자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에서 졸업장과 표창장을 주고받을 때는 축하(祝賀)와 격려(激勵)의 뜻으로 박수를 아낌없이 마음껏 쳐주는 것이 식전에 참석자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수치기를 주저(躊躇)하고 아긴다는 비판이 있는데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졸업식이란 학업(學業)이 끝나고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이란 학업(學業)이 끝나고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졸업식을 통해서 3년 또는 1년 간의 학교교육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졸업은 곧 학교교육의 수확이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끝나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해야 하고, 퇴폐행위(頹廢行爲)가 졸업장과 재학생 사이에 없어야 하겠다. 얼굴에 환함을 하고 밑가루를 뿌리고 웃을 짓는 것은 결코 없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70~80년대 졸업식장의 모습이 지 21세기에서는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졸업식에서 나 있을 법한 것이다. 모 학교 교감 재임 시에 졸업식이 끝난 뒤에 어느 졸업생이 난로 가에 쌓아놓은 장작으로 칠판을 쳐서 구멍을 내게 해 칠판을 망가트려서 담임·학부형과 상의하여 칠판을 새 것으로 교체 했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기억이 새삼 새롭기만 하다. 졸업을 당해서 학교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자유기고

서로 나누는 삶



권 귀 자
주부명예기자

천국과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적당히 살찌고 이웃 간에 평화롭고 사이 좋게 지내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뼈만 앙상하고, 부족하고 화나며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들을 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항상 긴장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 식사할 때는 자기 팔 길이보다도 훨씬 더 긴 기다란 수저와 젓가락으로 서로 간에 먹여주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기다란 수저와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해 한 사람도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에 모두 화나고 공포에 질린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곧 자기 것을 먹지 못해 남의 것에 대한 탐욕 어린 눈초리를 보내며 결국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처절한 모습이 지옥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세상에는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우리 이웃일진

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적은 도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의 일원으로서 미력하나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천신문의 좋은 뜻에 함께 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찾는 노력을 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몇몇 가정들을 도움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의 생활로 인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고, 그게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더욱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드린 분들 중에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분들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만 이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천신문에서 펼치는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돕기 활동(사랑의 쌀 전달, 불우학생 장학금 전달 등)은 그러한 뜻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rnk513@paran.com

졸업식과 꽃



강 옥 자
주부명예기자

졸업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꽃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더불어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자유게시판

경기가 어려우니 설 연휴를 많이 주어...

이번 구정 설 연휴는 두 파트로 나누어 설 연휴를 보내게 한 것 같다. 먼저 전반기 휴가는 대체로 토요일(5일) 이후부터 구정 마지막 휴일인 10일까지와 일요일(6일)특근에 월요일(7일) 근무를 하고 8일에서 13일까지 설 연휴를 보내게 하는 후반기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너그러운 설 연휴의 연장은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그야말로 웃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향을 찾지 못하고 타향에서 향수를 달래야 하는 씁쓸함을 맛보아야 했다. 이렇듯 국민의 대다수는 절망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름에

잠긴 모습들입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를 나름대로 이윤 없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나름대로 급여가 안나오는 것 아닌가 불안에 떨고 있으니 도대체 이난국의 해결은 그 어느 누구의 몫인지... 벌써 양력의 신정은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갔고 양력 새해에 다짐했던 그런 일들이 작심삼일로 물거품이 되었다. 다짐들을 음력의 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이 무지(아는 것 없는)한 독자의 바람이

고 그 누구든 말은 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어려운 난관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거미의 꿈꾸에서 나와 거미 줄이 지어지듯... 적어도 포천신문 애독자들 만큼이라도 말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구어...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한마디 덧붙여 보자구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다우신 일 많이 생기시고 하시는 일도 뜻하시는 대로 날로 번창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며... 독자

Innovation & Creative SHINHAN

식탁의 혁명 - 웰빙새싹채소
우리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무공해 웰빙 새싹채소 농장

요즘 유행하는 새싹채소는...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먹는 채소를 새싹채소라고 합니다.
식물은 보통 새싹이나 어린잎이 돌아오는 시기에 성장이 완성됩니다.
이시기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새싹과 어린잎이 모여있고 그 에너지가 새싹이나 어린잎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시기에 식물들은 완전히 자란것에 비해 영양소 등의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 새싹채소 기르는 방법
1. 새싹채소 재배용기에 물을 담습니다.
(물은 정수된 물이나 수돗물을 1일 이상 받아놓은 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용기위에 씨앗 받침대를 올려놓은 뒤 부직포나 키친타올로 그 위를 덮습니다.
3. 미리 6시간 정도 물에 불려놓은 씨앗을 받침대에 골고루 뿌려준 뒤 뚜껑을 덮습니다.
4. 싹이 틀때까지 덮여있던 후 받아서 식되던 덮개를 벗기시면 됩니다.
(삭이튼 후 1~2일에 한번정도 재배용 기간의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씨를 뿌린 지 7~10일 정도면 거두어 먹습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1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 화기에 주의하시고 높은 열에 주의하십시오.
- 씨는 어린이가 먹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재배하면서 농약이나 기타 실충제 등을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 씨앗이 물에 잠기면 받아하지 못합니다.

-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

1. 품명 : 새싹채소 재배용기 셋트
2. 재질 : 랩덱PP(폴리 프로필렌)
3. 내열, 내냉온도 : 80℃ ~ -20℃
4. 제조판매원 : 신한케미칼
5.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434-15
6. 반쯤 교환처 : 제조원 및 판매원
7. 주의사항 : 설명서 참조
8. 규격 : 300×430×160mm

Shinhan
Made In Korea
TEL.031-544-0884